

새로운 전북여성사 쓰기를 위한 기존 사례 검토와 제안

함한희 (무형문화연구원)

1. 머리말

여성사의 주류는 여성이 역사적으로 억압과 차별을 받아 왔으며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동서양을 막론한 여성 연구자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여성운동의 대중화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여성사 쓰기가 시작되었고, 이 또한 커다란 사회적 반향을 얻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따라서 한국여성사 연구가 이루어져왔고, 일정한 성과를 얻었다. 한국여성사의 저자들은 대체로 전통시대로부터 오늘날까지 진행되는 여성 억압의 원인을 찾아내는 것과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일이라고 저자들은 힘주어 말하였다.

그러나 역사 속 말없는 여성들을 불러내어서 말-억압과 차별을 당한 상황에 대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성과는 있었으나, 균형 감각을 가진 역사쓰기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역사 속 억압과 차별의 피해자인 여성이 있었다면, 가해자를 동시에 포착하는 그런 역사기술이 필요하다고 본다.¹⁾ 다시 말해서 사회문화적 제도에 순응한 경우가 일반적이라면, 이를 뚫고 나오고자 했던 여성들의 적극적인 면모를 살피는 역사기술도 필요하다. 발표자는 통합적이고, 총체적 시각을 가지고 기술한 역사가 한국 여성사를 성숙한 단계로 이끄는 길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본 발표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지역여성사의 현황을 알아보고, 이후 전북여성사의 방향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2. 지역여성사의 현황

지금까지 지방의 여성을 역사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는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드물었다.²⁾ 자료가 없어서이기도 하거니와 그 보다는 역사인식의 문제가 더 앞서 작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과연 사회적 활동이 거의 없었던 여성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과거를 연구할 필요성 내지는 가치가 있겠는가하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사적인 영역에서의 활동이 고작인 여성들이 역사연구의 대상이 되기에는 적절치 못하다는 뜻이다. 이처럼 지방사나 지방(지역)여성사는 중앙중심의 거대담론을 중시하는 기존의 역사학에는 연구의 가치가 뒤떨어지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존의 역사연구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시각으로 지방사나 여성사를 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³⁾ 그 결과 주변적인 관심에 머물러 있던

1) 한희숙, “한국여성사 이해의 저변 확대를 위해”, 『여성과 역사』 20:285. 2014.

2) 이 발표에서는 ‘지역’과 ‘지방’을 혼용해서 사용한다. 최근에는 지방 대신에 지역을 사용하는 경향이 짙다. 따라서, 두 용어의 함의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지만, 본 발표에서는 문맥에 따라서 구별하지 않고 쓴다.

3) 관련 연구논문은 일부는 다음과 같다: “지방사 연구의 현황과 새로운 방법론의 모색”; 역사학회.국사편찬위원회 2001년도, “지역사 이론과 실제 미시적 접근”이 있다. 『지방사와 지방문화 I』(역사문화학회 편, 1998)에 실린 고석규, “지방사 연구의 새로운 모색”; 김동수, “전남지방사연구의 현황과 과제”; 정진영, “영남지역 지방사연구의 현황과 과제”가 있다. 또 『한국사론』 32, 지역사 연구의 이론

지방사나 여성사도 이같은 연구경향에 힘입어서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⁴⁾

지금까지 지방사와 여성사 관련 논의에서 공통적으로 다루어진 주제는 탈중심적 역사인식의 필요성과 다성성을 반영하는 역사연구방법의 개발이었다. 지방은 중앙중심의 역사서술로 인해서 타자화된 역사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여성사 역시 남성 중심의 역사가 여성을 비역사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점을 반성하였다. 특히 지방여성사는 이중으로 소외를 당하고 있던 터였다. 특수한 여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 여성에 대한 역사연구는 그 필요성조차 느끼지 않았다.

이제는 지방사를 쓰는데 있어서도 지방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이미 지방여성들의 목소리가 지방사 서술에도 반영되기 시작하였다. 마침내 지금까지 가리어져 있었던 여성의 모습과 그들의 활동이 조금씩 베일을 벗고 역사의 지평 위에 오르게 된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래 지역여성사 출간이 앞을 다투어 이루어지면서 학계에서도 여성사 연구방법에 대한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기에 이르렀다.⁵⁾

여성을 역사적 연구의 대상으로 만들어주는 일은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며 새로운 지방사 쓰기의 시작일 뿐이다. 지금까지의 지방여성사가 여성의 활동을 드러내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방의 여성을 역사적인 주체로서 세우는 데에는 다소 부족한 감이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진전된 역사 연구방법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지금까지의 여성사에 나타난 역사인식의 문제를 짚어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새삼 여성사에 대한 인식을 문제 삼는 것은 역사인식은 연구방법을 정하는 바탕이 되고 역사서술의 길잡이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3. 역사의 주체로서 여성인식의 문제

여성사에서는 여성을 역사의 주체로 본다는 것이 역사인식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여성사 안에서도 서로 다른 입장이 있어서 역사적 주체로서의 여성을 인식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 우선 여성사 내의 세 가지 다른 입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는 기존의 역사서술에서 제외된 여성들의 이야기를 복원하는 것이 주된 학문적 임무라고 보는 입장이 있다. 서양사에서는 이러한 입장을 Women's history라고 부른다. 지금까지의 역사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았던 인물이나 집단을 역사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서 그 역사적인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서양사의 경우, 노예제 폐지운동이나 노동운동 또는 사회주의운동, 시민혁

과 실제 (국사편찬위원회 편, 2001)에 실린 이해준, “한국 지역사연구의 이론과 체계 시론”; 이훈상, “미시사와 다중성의 글쓰기”; 지수걸, “한국 근현대 지역사 서술체계와 활용자료-충남 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등이 있다. 그 밖에도 최근에 나온 다수의 논문이 있으나, 추후 보완할 예정이다.

4) 한국 여성사 연구를 정리한 논문은 다음을 참고하였다. 김정숙, “한국 지역여성사연구의 특성과 과제”, 『대구사학』 90 (2008), 이송희, “한국 근대 여성사 연구의 성과와 과제” 『여성과 역사』 제 6집 (2007), 김정인 “한국 근대 여성사 연구의 변화 추이와 전망”, 『한국여성학』 32: 2 (2016), 김은경, “‘우울한 열정’을 넘어 논쟁의 백열화(白熱化)로: 한국현대여성사 연구의 쟁점과 전망”, 『여성과 역사』 19 (2013), 소현숙, “한국 근대 여성사/젠더사 연구 동향과 과제”, 『역사문제연구』 51 (2023).

5) 지자체가 펴낸 지역여성사 관련 자료는 <전북여성생애구술사 전문가 집담회 계획(안)> 중 붙임 1. “시도별 지역 여성사 발간 현황 [1966~2023.11.30.]”을 참고한다.

명 등 괄목할 만한 역사적 사건에 여성들도 나름대로의 몫을 담당하고 있었음을 밝혀내었다. “여성도 거기 있었다네” 식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연구에서는 대접받지 못한 여성들에게 응분의 대가를 돌려주어야한다는 주장이 들어있다. Women's history 에서는 여성들의 숨겨진 정치적·사회적 활동에 주목함으로써 여성의 역할을 역사적으로 새롭게 조명하고 해석해 보는 데 그 주요 목적이 있다. 초기 지역 여성사가 대체로 이러한 역사 인식을 가지고 서술되었다.

두 번째로는 여성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연구하는 역사이다. 남성 중심적인 역사를 비판하면서 남성지배에 의한 여성억압과 종속의 역사를 서술한다. 페미니스트 역사 또는 여성해방주의 역사라고도 하며 다분히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여성을 억압하는 요소들을 규명하기 위해서 가부장제의 기원과 성립 그리고 발달과정에 주목하는 연구가 여기에 해당한다.⁶⁾ 세 번째로는 여성주의적 역사가 가지는 편향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대안인데, 성의 역사 또는 젠더 역사라는 입장이 있다. 젠더의 역사는 여성사를 연구할 때 여성을 남성과 분리하면서 나타나는 한계를 지적하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즉 성역할의 의도적, 정치적인 구분은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피해를 미쳐왔기에 젠더역사에서는 남성과 여성을 구분 짓지 않겠다는 뜻이 들어 있다. 여기에서는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남성에게도 억압적인 상황이 전개되었다는 역사 인식을 가지고 출발하고 있다. 남녀 모두를 아우르는 역사를 서술코자 한 것이다. 최근에는 지역여성사에서도 젠더역사 인식에서 출발하고자 하는 발전방안이 나오고 있다(충북 여성사 발간사업 발전방안, 2022).

여성사의 이 같은 세 가지 입장들은 각기 여성을 역사적 주체로 인식하면서 새로운 역사서술과 해석을 하여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역사에서 여성을 주체로 인식한다면 구체적으로 나오는 역사서술은 어떤 성격을 가지는 것일까. 이것은 크게 보아서 두 가지로 생각된다. 하나는 여성이 역사전체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내세우게 된다. 다른 하나는 중요성과는 무관하게 여성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여성이 역사의 주체이어야 함을 보여준다. 전자의 경우는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여성사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으므로 여기에서 나는 후자의 중요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후자의 핵심은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이 역사의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는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여성을 주체로 하여 역사를 바라보는 여성주체론의 실체라고 생각된다. 전자의 경우는 여성이 국가사나 지방사에서 중요하기에 즉 전체사를 움직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여성에게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논리의 함정에 빠지기 쉽다. 즉 중요치 않은 여성/사람은 역사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고 이는 기존의 역사인식과 다를 바가 없다. 여기에서 역사적 역할의 중요성을 따지는 기준이 무엇일 까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여전히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만들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소수의 여성 지도자들의 역사를 밝힘으로써 그들의 활동이 남성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사회변혁을 이끌었다는 점에 주목하게 된다. 이 때, 운동과 혁명을 통한

6) 대표적인 논문은 초기 여성학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발표되었다: 조옥라, “가부장제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여성학』 2집 (1986); 이효재, “한국 가부장제의 확립과 변형,” 『한국가족론』, (까치사, 1990); 신영숙, “한국가부장제의 사적 고찰,” 『여성, 가족, 사회』, (열음사, 1991).

사회변혁이 중요하다는 점은 남성중심의 역사에서와 같은 기준에서 과거를 바라보는 것이다. 이같은 연구가 중요치 않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 특히 역사에서 가려진 여성 지도자들의 행적을 밝히는 일은 지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성의 중요한 역할을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면에서만 찾게 되면 다시금 몇 몇 여성을 위한 역사연구라는 비판을 받게 된다. 다시 말해서 역사에서 여성을 역사서술의 대상으로 끌어올리기는 하였지만, 역사인식의 틀은 여전히 인습적인 남성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지적을 받게 된다.

한국의 여성운동사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여성운동사 연구는 주로 여성교육운동과 항일 구국운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강원여성독립운동 2013; 대구경북여성운동 50년, 1997; 전남여성 독립운동가, 2019; 충남 여성인물사: 충남여성이야기 3(충남 여성 독립운동 이야기, 2019; 충북여성독립운동가 16인의 기록, 2020).⁷⁾ 1890년대 여성들의 의병활동, 1907년의 국채보상운동을 비롯하여 독립운동사 등의 연구성과가 있다. 『한국여성독립운동사--3.1운동 60주년 기념』는 자료집의 성격이 강하지만, 독립운동에 참여한 여성운동가를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하였다.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여성독립운동가의 업적을 발굴하여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크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남성 독립운동가들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여성들의 활동을 조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독립운동 당시의 여성들의 정치적 활동과 의식 등을 제대로 밝히기 어렵다고 보여 진다.

여성중심의 역사의 기준은 사회적 우열이나 정치적인 힘의 강약은 아닐 것이다. 우열과 강약의 기준이 여전히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나온 것이라면 명칭만 여성중심의 역사이지 실제로는 남성중심의 역사와 큰 차이는 없다. 결과적으로 전체사나 국가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여성들은 여전히 여성사에서도 배제되기 때문이다. 지방여성의 역사를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논리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주의 역사학에서 강조하는 여성의 억압과 종속의 역사 역시 문제가 있다. 여기에서는 여성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이나 의식이 소홀히 다루어진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역사상 나타나는 구조의 모순을 강조함으로써 역사를 정태적으로 파악하게 되는 한계도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여성이 중심이 되는 역사를 서술하기 위해서는 그들만의 특수성을 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여성사를 이해하기 위한 유력한 방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여성사의 특수한 국면을 전체사의 구도 속에서 가지게 되는 상대적인 위치를 밝히면 된다. 이 두 단계의 작업을 통해서 비로소 여성사의 성격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으며 여성사의 수준이 높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4. 문화사로의 전환

지금까지의 역사서술은 과거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초기

7) 여성운동사 연구와 관련된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다: 강남식, “여성사연구방법론이 쟁점과 방향: 1960.70년대 한국 여성노동사 연구방법을 모색하며”, 『1960-70년대 노동자의 생활세계와 정체성』, (한울, 2006), 박용옥, 『한국근대여성운동사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연구 중 하나인데, 여성생활사를 쉽고도 재미있게 쓴 책의 제목도, 『우리나라 여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이다. ‘여성들이 삶의 궤적을 추적하여서 한 올 한 올 복원해 놓은 여성생활사’라는 설명이 붙어 있다. 사건이나 제도의 변화를 중심으로 서술하는 역사서와는 달리 과거의 여성들의 일상생활을 밝히는 것이어서 흥미로우면서도 또한 유용하다. 이같은 생활사적 접근법도 지방의 여성사를 서술하는데 유력한 방법이 되기에 각 지자체 여성사는 이 방향에서 자료가 수집되고 또 기술되고 있다.⁸⁾ 그러나 한편으로 생활사가 가지는 한계는 현상적인 관찰과 서술에서 그치게 된다. 사실 역사연구가 필요한 까닭은 변화와 그 원인에 대한 설명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생활사에서는 이러한 점이 부족하다.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도 유력해 보인다. 즉 과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어떻게 생각했는가’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다(조한욱 2001: 146). 이것이 바로 문화사적 접근이며 지역 여성사를 위해서는 좋은 연구방법이라고 생각된다. 과거의 여성/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가 결국은 역사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문화사는 역사적인 자료를 읽고 해석함에 있어서 ‘두껍게 읽기’, ‘다르게 읽기’, ‘작은 것을 통해 읽기’, ‘깨뜨리기’ 등의 방법에 의존하여 역사적인 사건이나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그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조한욱 2001: 146). 이 문화사는 기어츠의 문화론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문화 기술방법으로 심층묘사의 중요성을 역설한 기어츠는 문화는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시하였고, 역사에서도 이러한 해석학적 관점의 유용성이 받아들여지면서 문화사라고 하는 새로운 영역이 등장하였다.⁹⁾ 기존에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또는 어떻게 살았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문화사에서는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에 주목한다. 즉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상징적 내용을 깊이 있게 ‘읽으며’ 그것을 기호로서 해석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역사도 이제는 인류학에서처럼 다양한 문화적 형태를 탐구하는 것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여전히 역사적 사건과 사실을 밝히는 것도 중시되며 또 문화적으로 인식되는 관념의 체계를 알아보는 데 이르기까지 역사연구의 범위는 확대되었다. 문화적으로 인식되는 관념의 체계란 한 사회 내에서 생산되는 것으로서 엘리트들의 것만이 아니라 보통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의미의 방식도 포함된다. 다시 말해서 한 사회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관념체계나 상징체계를 알아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종래에도 그것을 연구하는 사상사의 영역이 있어 왔다. 그런데 종래의 사상사에서는 주로 시대정신을 이끈 중요한 인물들의 사상이나 이념을 알아보는 일을 주로 하였다. 이에 비하여 문화사에서는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나 관념체계를 탐구하여 당시 일반인들의 문화를 밝혀내는 일에 주력한다.

문화사의 주요한 관점과 대상, 즉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에 주목하는 연구방법이 전북 지역 여성사 연구에 도입되면, 지역 여성사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이 방법은 한국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관습이나 제도에 대하여 여성들의 생각을

8) 2024. 08.08에 열린 전북여성생애구술사 전문가 집단회 자료 참고; <전북여성생애구술사 전문가 집단회 계획(안)> 중 붙임 1. “ 시도별 지역 여성사 발간 현황 [1966~2023.11.30.]”

9) 서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사·심성사의 특성에 대한 소개의 글로는 다음의 연구들이 참고가 된다: 金應鍾 1994; 鄭鉉栢 1994; 趙漢旭 1992; 朱明哲 1991.

알아볼 수 있게 된다. 또 여성들이 만들어냈거나 지어낸 상징의 체계나 상징물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여성의 실제 모습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지금까지 소외되어 왔던 지방 여성의 과거를 여성의 입장에서 재구성함으로써 해서 지역 여성사를 새롭게 조명할 수 있을 것이다.

5. 내러티브의 문제

여성사를 한 단계 끌어올리려면 역사서술의 문제를 다루는 것도 필수적이다. 역사서술이 일반적으로 과학적인 방법에 치중하게 되면서 이야기로서의 역사는 자취를 감추었다. 이야기 형식의 서술은 비과학적이라는 판단 때문에 이야기식의 역사는 야사 내지는 민담으로 분류되고 말았다. 관련된 증거자료를 찾아 사건의 전말을 인과관계의 고리로 연결시켜 논리적으로 기술하는 것만이 과학으로서의 역사라고 인정받아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시 역사의 서술형식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과학으로서의 역사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게 되었다. 역사가의 주관적인 서술양식이 역사를 기록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방향은 역사서술에서도 과학과 객관성이 지배하던 것으로부터 문학과 상상력의 필연성을 강조하는 것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역사가들은 문학가와는 달리 역사서술에 있어서 허구적인 요소를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하여 왔다. 역사가는 스스로에게 학문적인 엄격한 지침을 설정하여서 역사 서술에 있어서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헤이든 화이트는 이러한 노력 자체가 허구인 것을 지적하였다. 그는 역사적 사건을 기술하려는 모든 시도는 “‘상상적이고 상상적일 수 밖에 없는 삶의 일관성, 성실성, 충실성과 끝맺음을 보여주는’ 화술에 필연적으로 의존한다”고 하였다(크레이머 1996: 151에서 재인용). 마틴기어의 귀향을 저술한 나탈리 데이비스도 자신의 저술을 ‘의식적으로 과거를 소설화한 작품’이라고 평하고 있다(Halttunen 1999: 167). 소설화는 허구나 가공이란 의미를 가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거짓이라거나 속임수라는 뜻은 아니다. 그것은 단지 역사가가 상상력에 기초하여 과거를 구성하려는 노력이 깃들여 있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과거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역사가는 일련의 사실들을 이야기로 엮어 내야만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과거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이 없이는 어떤 역사라도 제대로 서술해 낼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여야 한다. 역사가는 객관적 입장을 견지하고 연구를 시작하더라도, 그가 어떤 이야기들을 취할 것인지, 어떤 순서로 서술할 것인지, 어떤 표현을 쓸 것인지 따위에서 그의 막중한 역할과 개인적 선택의 중요성이 드러나는 것이다.

특히 지역의 여성사를 쓰기 위해서는 역사가는 이 같은 서술의 문제를 직시하면서 획기적으로 과거의 이야기를 끌어갈 필요가 있다. 문서화된 자료가 드문 지역여성들의 과거를 재현하기 위해서는 구술이나 구전자료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구술 자료를 이용하여 역사를 재구성할 때도 역사가의 역사적 상상력과 문학적 자질이 총동원되어야 한다. 즉 여성 구술자의 이야기 내용과 화술도 문제려니와 그것을 엮어내는 역사가의 화술이 더 중요해진다. 그가 전체의 이야기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 구성을 위해서 어떤 부분의 이야기를 취할 것

인가 그리고 어떤 순서로 이어갈 것인가 등등의 문제는 전적으로 역사가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야기는 단순히 말의 흐름이 아니다. 이야기는 인간의 삶을 엮어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힘이 들어있다. 즉 이야기는 인간의 삶의 일부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말하는 이야기 속에서 살게 된다. 이야기는 그들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불연속으로 일어나는 것의 방향을 정하며 화자들의 정체성을 일관되게 엮어주고 있다. 역사가들은 스스로가 고도의 화술을 가진 이야기꾼임을 내세울 때 기존의 역사서술이 가지는 한계를 넘어서 지방 여성들의 목소리를 잘 엮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 지역 문화사의 예--한국전쟁과 임실여성

발표자가 한국전쟁기 여성사를 쓰기 위해서 택한 방법에 대해서 잠시 언급해 보기로 한다.¹⁰⁾ 전쟁을 경험한 여성들에게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서 이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그리고 그들의 서사를 분석해서 전쟁이 여성들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한 활동이나 의식이 어떤 것이었으며, 그들의 삶의 변화가 당시 사회문화적 상황에서는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를 살펴보았다. 궁극적으로 발표자는 이 전쟁과 여성 연구를 통해서 전쟁기 여성들의 문화적 위치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발표자는 전쟁 중 여성이 서게 된 위치를 ‘경계’라고 표현했다. 그 이유는 경계가 가진 속성이 여성의 삶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뜻에서이다. 그렇다면 경계의 속성을 파악해야 하는 일이 우선인데, 이는 결국 여성에게 전쟁은 어떤 의미를 지녔는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경계는 극한적인 위기를 의미한다. 극한 상황에서 서 있던 임실지역의 여성들이 겪었던 특수한 상황을 그들의 입장에 서서 살펴보았다.

한국전쟁 중 여성의 내면적인 경험을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을 사용했다. 첫째, 여성들이 겪은 구체적인 위기상황을 본인으로부터 직접 듣는 과정을 거쳤다. 때로는 전쟁 당시 사망했거나 전쟁 직후 소식이 끊긴 여성들의 이야기는 가족, 친척, 또는 이웃의 구술증언을 취했다. 둘째, 여러 가지 사건과 사례가 분포되어 있는 군 단위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했다. 군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삼아 조사할 때의 장점은 국가나 도와 같은 상위조직과 면, 리, 마을과 같은 하위조직이 만나는 접점이 되기 때문에 큰 조직의 움직임도 알 수 있고, 아래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사건도 파악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군 단위에서는 개별마을에서 보기 힘든 다양한 사건을 접하게 되며, 국가를 단위로 했을 때 지나칠 수 밖에 없는 갈등의 구체적인 양상까지도 놓치지 않게 된다. 이러한 군 단위 조사의 이점을 바탕으로 필자는 여러 마을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여성 정보제공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재된 다성성을 접하면서 전쟁이 승리와 패배의 결과만 가지고는 읽기 어려운, 매우 복잡하고 복합적인 전개과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발표자는 이 연구에서 전쟁 중 여성들이 서 있던 위치를 줄곧 경계에 비유하였다. 경계는 소외지대를 의미한다. 그래서 타자화된 공간/상태라고 본다. 경계에는 위기의 순간만이 드리

10) 참고, “한국전쟁과 여성-경계에 선 여성들”, 『역사비평』 91호.

워져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변화 또는 소멸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이 같은 경계성을 여성들의 전쟁 경험에 비추어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했다. 경계성을 살필 때는 내부자의 시선, 즉 여성주체의 입장에서 바라보고자 했다. 전쟁 중 임실 지역의 여성들은 정치적 무질서 속에서 무력충돌과 이념전쟁을 겪었고, 그 와중에 문화적인 혼란을 경험했다. 그들이 스스로 구성해야 할 정체성은 더욱 모호해졌다. 좌익과 우익의 이념적 경계를 넘나들던 임실의 김할머니는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더구나 가족으로부터 배제를 당하고 난 뒤에는 가족관계조차도 믿을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우익의 남편이 피난간 사이 좌익의 내연의 처가 되어버린 정씨나 우익의 애인을 구해내기 위해 좌익의 수장과 혼인을 택한 장경님 역시 자기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했다. 이종순은 어린 나이에 대부분의 식구를 동시에 잃어버리는 불행을 겪으면서 혼자서 살아남았다는 자책감이 그를 공황상태에 빠뜨리기도 했다. 기존의 가족관계와 같이 확고해 보이던 것들도 죽음이나 배반 등으로 일시에, 그리고 쉽게 무너져버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들은 자신들을 따라다니던 이념의 기호와 문화적 권위가 상황이 바뀌면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여성들은 삶을 영위해나가야만 했다. 경계에 선 여성들은 어느 한편으로 기울어져 편승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존재의 초긴장상태에서 혼란스러워 했지만 긴장과 혼란을 거치면서 새로운 공간/상태를 만드는 데 자유로울 수 있었다. 이념, 가족, 성의 규범이 흔들리면서 문화적 혼란의 소용돌이를 경험한 여성들은 기존의 문화에 얽매이기보다 그 권위에 도전장을 내기도 한다. 이종순의 경우는 어린 나이에 홀로 세상에 남게 되면서 스스로 좌익분자라는 꼬리를 떼어냈다. 김할머니의 경우도 친정은 좌익으로 몰려서 죽고, 시집은 우익이라는 이유로 가족이 몰살당했지만, 어떤 특정한 사상이 그를 지배하지 못했다. 그건 장경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사랑하던 오진수를 구해내고 빨치산 대장의 아내가 되었다가 마침내는 남편을 체포한 경찰간부의 처가 된 그에게 이념은 삶의 중요한 목표가 아니었다. 그들은 이념으로부터 자유로웠다. 그들에게는 현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었다. 배소고지 사형장에서조차 가족으로부터 배척을 당한 김할머니는 다시 가족을 추스렸다. 자녀를 더 낳고 키우면서 기울어지기 시작한 가정경제를 일으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했다. 가족이 그를 밀어내도 그는 굴복하지 않고 새로운 가족을 형성해나갔던 것이다. 이념을 좇다가 무참하게 죽은 빨치산 남편도, 이념을 거부하다가 사랑하던 여인을 잃은 오진수도 모두 마음 속에 묻어버린 장경님은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경계에 선 여성들은 종래의 문화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으며, 이러한 초월성이 경계에 선 여성들의 특유한 문화적 실천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위기가 경계를 전면적으로 덮고 있지만, 그 틈새에서는 창조의 공간/상태도 나타난다. 경계는 타자화된 공간/상태이면서 여성주체들의 실천이 이루어지고 문화와 역사가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상태이기도 하다.

“여자들은 폭력에 맞서기보다는 난리도 남자도 한꺼번에 다 자기네 내부에다 수용해버립니다. …… 여자는 토지하고 갈아서 흉년일수록 오히려 더욱 깊숙이 씨앗을 감추는 겁니다. 난리를 견디고 그 난리 뒤에 언젠가는 올 태평성대까지 다리를 놓아주기 위해서는 잠시도 생산활동을 중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라고 윤흥길은 소설 『에미』에서 여성의 생명력을 독백처럼 말

했다. 동일한 수사적 표현으로 전쟁 중 임실 지역 여성들에게 나타난 초월성을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배소고지를 가리키고 있는 김할머니.

발표자는 전쟁이 통상적인 사회구조의 정형을 깨뜨리며, 여성들이 일상생활에서 지켜온 문화적인 상징들과 권위가 전복되는 위기상황이라는 점에 주목해서 문화사적 변화를 추적해보았다. 전쟁의 위기 속에서 여성들은 존재의 긴장과 혼란을 경험하게 되며, 그러한 경험은 여성으로 하여금 새로운 문화적인 수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필자는 경계에 선 여성이 자신을 제압하고 있던 이데올로기나 권위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다는 사실과, 그러한 초월적 인식과 행동이 위기를 목전에 둔 여성들이 발휘한 특유한 문화적 실천이었다고 해석했다. 경계는 타자화된 공간이지만, 주체들의 실천행위가 구현되는 곳이라는 점도 중시했다. 이 연구를 통해 필자는 여성들이 경계에서조차 그 곳/상태를 새로운 문화가 태동될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상태로 바꾼다는 점을 밝혀내고자 했다.

7. 맺음말

지금까지 기존의 학계에서 연구된 한국여성사와 지자체에서 편찬되고 있는 지역 여성사를 검토하면서 어떤 시각과 접근법을 가지면 좋을 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다. 이 과정에서 핵심을 이루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하나는 여성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여성이 역사의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는 여성 중심의 역사가 쓰여져야 한다는 점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의 특수한 점이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다른 하나는 사건 중심의 정치사나 사회사에서 벗어나서 보통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의미의 체계나 관념의 세계에 관심을 가지는 문화사로서 여성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과거의 여성들이 ‘어떻게 살았는가’하는 단순한 역사기술에서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였는가’를 해석하는 역사로 올라설 수 있게 된다.

이 논의에서는 결국 특수사의 관점과 문화사의 관점이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다. 이 두 가지의 관점을 기둥으로 해서 지방의 여성사를 새롭게 복원하고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고자 하였다. 아울러 역사가의 서술방법에서 역사적 상상력과 문학적 요소의 중요성도 간략하게 짚어보았다. 지역 여성사는 연구방법에서 뿐만이 아니라 서술방식에서도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여성문화사가 성숙된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파편적인 시도는 있었으나, 체계적인 구현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안다. 그러므로 전북의 여성사가 여성문화사로 쓰여진다면, 타 시도에 모범이 될 것이다. 여성문화사는 사회사, 열전, 인물사, 생활사를 아우르는 작업이므로, 또 다른 역사쓰기라기 보다는 지금까지의 작업을 관통하는 여성들의 진정한 가치관을 드러내 보이는 일이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서양의 젠더 개념에 매몰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의 시대별로 변해온 전통적 남/녀 구분의 개념을 바로 세워 서 역사 속 여성들의 역할과 지위 회복하는 데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은 각주에 소개된 내용으로 대신한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sa/4.0/)